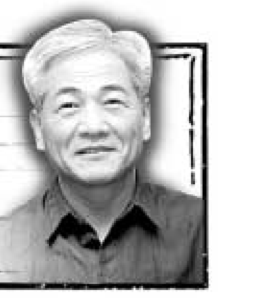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0>



선견비구의 법문

삼안으로 관하여 일체중생 교화
청정한 범행 근본삼아 육바라밀 실천

선재동자는 자행동녀로부터 남쪽 삼안국(三眼國)에 있는 선견(善見)비구를 찾아가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삼안국에 이르러 이곳 저곳 선견비구를 찾아다니다가 숲 속에서 오가며 거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견비구는 한창 나이에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하며, 지혜가 넓어 큰 바다와 같아 여러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쓸데없는 움직임과 부질없는 말이 모두 쉬었고 부처님이 행하시던 평등한 경계를 얻었으며, 대비심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여 잠깐도 버리지 않으며, 일체중생을 이익케 하기 위하며, 여래의 법눈을 열어보이기 위하며, 여래가 행하시던 길을 가기 위하여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자세히 살피며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때 선재동자가 선견비구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선견비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써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나이도 젊었고 출가한 지도 오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이승에서 삼십팔 항하의 모래 숫자만큼이나 되는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범행(梵行)을 닦았다.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하루 낮 하루밤 동안,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칠일 칠야 동안, 어떤 부처님 처소에서는 반 달 · 한 달 · 일년 · 백 년 · 만 년 · 억 년 · 일 겁 · 불가설 불가설 대겁(大劫)을 지냈다. 그 동안에 묘한 법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며 모든 서원을 장엄하고, 증득할 곳에 들어가 모든 행을 닦아서 여섯 가지 바라밀다를 만족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곳 저곳을 거닐 적에 잠깐 동안에 모든 방위와 세계가 나타났으니 지혜가 청정한 때문이며, 잠깐 동안에 불국토가 깨끗이 장엄되었으니 큰 서원을 성취한 때문이다. 잠깐 동안에 중생의 차별한 행이 나타났으니 십력(十力)의 지혜를 만족한 때문이며, 잠깐 동안에 불가설 불가설 부처님들의 청정한 몸이 앞에 나타났으니 보현의 행원(行願)을 성취한 때문이다. 그리고 잠깐 동안에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께 공경 공양하고, 부처님을 법을 받으며, 보살의 수행바다가 앞에 나타나며, 삼매바다가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 등등은 모두 지혜광명의 서원(誓願)을 성취한 힘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이 중생의 경계에 따라서 지혜의 등을 밝혀 가는 해탈문(菩薩隨順燈解脫門)' 만을 알 뿐이다."

이와 같이 선견비구가 선재동자에게 설하고 있는 법문은 '지혜로써 끊임없이 중생을 교화하는 보살수순등해탈문' 이다. 우선 선견비구가 머무르고 있는 국토의 이름이 삼안국(三眼國)인 것은 선견비구가 지혜를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삼안은 지안(智眼) · 법안(法眼) · 혜안(慧眼)으로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관하고,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안목을 가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을 비유한 것이다. 여기에 비구의 이름이 선견인 것은 삼안으로써 모든 법을 잘 보고 일체중생의 근기를 잘 알아서 시기적절하게 거기에 응해서 교화하여 해탈케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견비구가 숲속에서 이리저리 오가면서 거닐고 있는 것은 생사의 현실세계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세계 속에서 지혜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중생의 무명을 밝히는 것이 마치 하나의 등(火登)이 무수한 등에 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세계를 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살의 수순등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이도 젊고 출가한 지 오래지 않은 선견비구가 이승에서 무량한 부처님 처소에서 청정한 범행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발심할 때에 올바른 지혜가 나타나고, 무명을 타파할 때에 한량없는 악업이 소멸하고 한량없는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갠지스강(恒河)의 모래 숫자만큼이나 되는 부처님이라고 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보살행은 이와 같이 청정한 범행을 근본으로 하고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 저곳을 거닐 적에 잠깐 동안(一念)에 모든 방위와 세계 내지 불가설 불가설 삼매바다가 앞에 나게 하는 것 등등은 모두 지혜광명의 서원을 성취한 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념중에 일체의 세계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원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일념은 어떠한 분별이나 차별이 없고 미혹도 없는 지혜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생각 생각(念念)으로 수지(受持)하는 보현의 원력에 의해 지혜로운 경계가 펼쳐지고 깨달음의 밝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6>

선사의 공안과 말이라는 감옥 (上)

사물, 말로 표현되는 상징·은유에 불과
세상 모든것 그대로 진리의 한 모습

생명체인 우리는 서로 말을 사용하여 뜻을 공유한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도 말로 인한 지식의 공유와 전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말을 놓으라고 강조하는 참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다. 어린이에게 이 질문을 하면 보통 '나는 나지요' 라는 대답을 한다. 이 대답은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대답은 '사실' 에 근거한 대답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 한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기에. 그렇다면 무엇을 사실이라 (과학적 사실을 포함하여) 하며 무엇을 진실이라 할까요?

진실은 상대적 실체의 유무를 벗어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 스스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짐짓 정의한다면, 사실이란 우리들의 약속된 조건을 통해 서로가 그렇다고 '믿는 것에 불과한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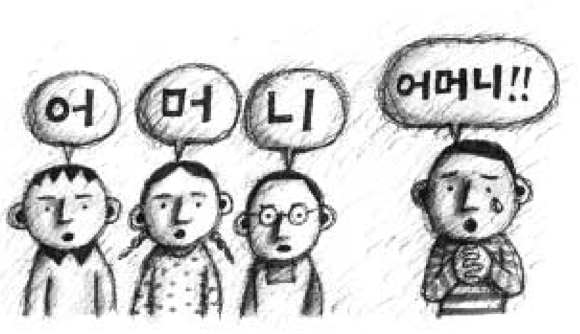
과학자들의 약속 하에서 펼쳐져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과학적 세계이기에 지금의 약 속에서는 '25-2' 를 23이라 말하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약속하기에 따라 '25-2' 를 5라고 (2가 없어지니까) 약속하여 이 세계를 보아 왔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실을 규정하는 우리 믿음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생명체가 사용하는 말이 있다. '어', '머', '니' 라는 단순한 세가지 소리를 조합해 어머니라는 뜻을 만들어 낸다. 그러한 소리와 그 뜻은 본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공통된 약속에 의해 그러한 세 가지 소리의 조합은 어머니라는 것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당연히 가리키고자 하는 그 자체와 그 수단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 해도 그 말을 듣는 각자는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들어가 실제로는 각자 틀린 뉘앙스로 어머니라는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쨌든 말의 이러한 면은 일종의 상징이요, 은유(metaphor)라 할 수 있다.

성장하며 말을 배워 말을 통해 자의식이 형성되기에 우리가 보고 들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사물(相)은 말로 표현되는 단순한 상징과 은유에 불과한 것이요 실체 · 실상 · 진실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비유의 세계에 불과한 것이다. 즉, 말의 질서는 사물의 질서요 은유의 질서이며, 이것이 곧 존재의 질서이다. 은유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은 실상, 그 자체와는 본질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다. 다만 그 양자간의 관계를 우리는 믿어 받아들일 뿐이다. 결국 현재 이 세상 속의 실상은 단지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 얼굴을 나타내고 표현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즉, 실체(실상)는 단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8만4천의 얼굴로 존재하게 된다. 내 마음 하나에 의해 이세상이 펼쳐지고 지금 이 순간에 삼천대천세계가 내 마음 한자리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선의 세계 ③

직지인심(直指人心)-2

기존의 익숙한 개념·관념에 맞춰 번역

선종에서는 왜 경전 공부를 '한눈팔기' 라고 비난할까?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의 일환으로, 선종이 일어나기 전 중국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경전 공부에 주력하였던 양상을 더듬어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자연히 중국에서도 불교가 전래된 뒤 내내 경전 공부가 중시되었고, 경전 해석을 중심이자 바탕으로 해서 불교사상이 매우 깊이 있고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불교가 새로운 지역에 소개되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는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 있다. 대개 외국의 승려가 불상(佛像)과 경전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또한 왕족 등 높은 신분의 사람이 병으로 고생할 때 승려가 이를 치유해주는 등 신통력을 발휘하는 이른바 신이(神異) 현상을 통하여 신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소개되던 사정에 대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적혀있는 기사들도 대개 그런 내용이다. 그것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에 불교가 소개된 것은 한(漢)나라 때, 서력 기원 전후가 바뀔 즈음이었다고 한다.

불상은 종교적인 신앙 대상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경전은 종교적인 신념 내용, 즉 교리와 사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신이한 힘은 그 종교의 신빙성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종교를 접하고 그 신이한 힘을 신뢰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자연히 그 교리와 사상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경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자기 나라 글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열의 있는 인도 승려가 중국말과 글을 배워서, 또는 중국 지식인이 인도의 글을 배워서 경전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언어와 문자를 바꾸는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Father called mother."라는 영어 문장에 대해, father를 아버지, mother를 어머니, call을 부른다로 바꾸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다."고 번역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경어법을 적용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르셨다."고 손질을 하면 훌륭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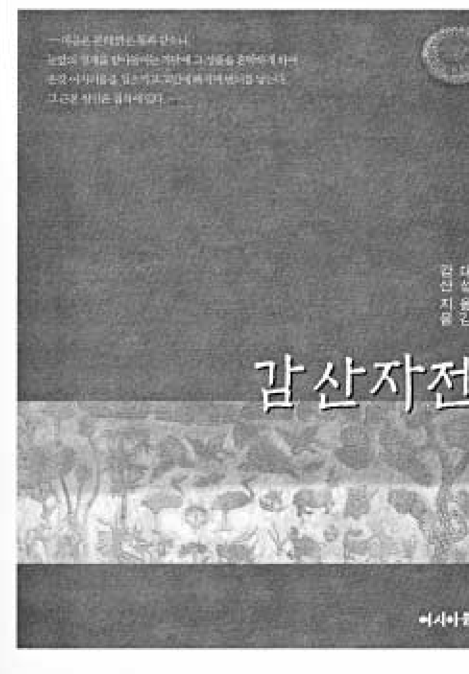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간단한 문장 하나도 번역이 제대로 되려면 전후 사정을 간파해야 한다. 더욱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가득찬 종교 문헌을 번역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낯선 다른 문화의 세계관을 담은 종교 문헌을 번역할 때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기 문화에 있는 기존의 익숙한 개념과 관념에 맞추어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 처음에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할 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당시 중국 종교사상 가운데 그래도 불교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도가(道家)사상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던 초기에는 도가의 개념과 사상이 많이 동원되고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테면 무(無)라든가 도(道)라는 말로 번역된 불교사상의 개념들을 도가적인 의미의 무, 도로 이해하곤 했던 것이다. 이처럼 불교에 대한 이해를 중국적인 틀, 특히 도가 사상의 틀에다가 짜맞춘 것을 두고 격의불교(格義佛敎)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곧 불교 사상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본격적인 이해의 노력이 펼쳐지게 된다. 그것은 역시 경전 공부가 무르익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번 회는 어느새 지면이 다 차서 다음 회로 이야기를 넘겨야 하겠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마땅히 가야 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憨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열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지은이 감산 (憨山, 1546~1623)스님은 운서 주굉, 자백 진가, 우익 지욱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遮會를 열어 법을 설하자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廬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寺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 (大晟)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문)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 (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2-1521 / Fax 02-737-0696